

유 학 보 고 서

파 견 대 학	요성대학교
파 견 기 간	1년
학 과 및 학년	경영학과 , 4학년
성 명	이하늘
제 출 일	2017.02.07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16년 2학기

학기종료: 17년 1학기

방학: 12월30일~2월27일

학교주소:중국 산둥성 요성시 요성대학교

요성은 중국의 4대 불가마의 하나라고 할 만큼, 여름엔 덥다고 들었다.16년도 9월에 중국생활을 시작했지만 10월까지 더웠다.

요성이라는 곳은 시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을 보면 신기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식은 주로 서문 앞에서 많이 판다. 학생들은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어학당 12학점만 이수하였다. 과목수강의 난이도는 딱 좋았다. 나의 경우에는 중국어 3개월 배우고 간 상태에서 초지2반 수업을 들었는데, 난이도가 딱 알맞았다. 맨 초반에 레벨테스트가 있으니 레벨 테스트를 토대로 어느 반 수업을 들을지 선택 가능하다.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중국의 다른 학교에서 살아봤지만, 요성대의 기숙사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좋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화장실 변기 수압이 낮다는 방도 많은 편이며, 에어컨 및 난방기구도 원활히 친절하게 제공해주는 편도 아니다.

다른 중국 학교는 모르겠지만, 요성대학교에서는 일정 전기요금을 다 사용하면 직접 돈을 충전하여 사용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16년도 1학기 나와 룸메는 한번도 전기요금이 부족한적은 없었다.



<나의 방 내부>

화장실도 태양열로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날씨가 흐린날에는 따뜻한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기숙사에 처음들어 갔을 때 이불보와 배게커버는 직접 사서 갈아야 한다.

처음에 가면, 방과 화장실에 먼지가 조금 많은 편인데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서 1학기 5525위안을 냈다.

기숙사 2층은 교실이고, 3층,4층,5층은 기숙사이다.

기숙사에는 통금이 있어 밤 늦게 외출은 불가하다. 기숙사는 서캠퍼스이며, 서캠퍼스는 주로 인문학과 쪽이다. 동캠퍼스는 이과쪽이며, 학교가 매우 크다.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한달에 약 30만원이면 넉넉한 편이었다. 요성은 물가가 중국에서도 싼 편에 속한다 책은 학기 시작시에 약 500위안이면 충분히 산다. 책은 기숙사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핸드폰은 china mobile에서 했다. 하지만 같이 지내던 한국인들 중 갤럭시 유저의 이야기를 듣자하니, 한국의 갤럭시 유저들은 china mobile보다 china unicom이 데이터통신이 훨씬 원활하지만, 학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china mobile 용 와이파이이다. 와이파이를 이용하고싶다면 무조건 china mobile 통신사를 이용해야 한다.

식비는 하루 보통 20위안이면 넉넉했다. 다만, 메뉴가 매일 비슷해서 조금 질린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요성대학교의 장점은 우선,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점이다.

요성 자체가 중국에서도 시골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에는 정말 적합한 장소이다.

단점은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도시가 아니고, 기숙사도 좋은 편이 아니라, 조금 열악한 편이다.

6. 유학생활을 마친 소감

요성은 시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반면에 조금 심심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엔, 중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러시아 친구들이나, 가나, 미국 친구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귄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조금 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더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아직까지는 요성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걸로 안다. 그래서 혹여나 요성대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쁘게 답해줄 의향이 있다.